

2024. 2. 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02-724-0138

전시과장

박상빈

02-724-0145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museum.seoul.go.kr>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유람일자: 유(儒)를 여행하다> 전시 개최

- 서울역사박물관-한국유교문화진흥원, 2.6.~4.21. 유교문화 재해석 특별전 진행
- 선비들의 ‘고택’, ‘서원’, ‘구곡’ 3가지 주제 구현, 디오라마·영상 등 다양한 전시
-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유교 정신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쉽’의 공간 마련
- 윤증·김장생·송시열 초상, 서적 통해 충청 유교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디오라마 :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실물 축소 모형

- 윤증·김장생·송시열 등 조선시대 학자이자 사회적 리더인 선비의 초상과 서적을 비롯해 그 시절 선비들의 삶의 궤적인 ‘고택’, ‘서원’ 등을 확인하고 그 시절 시대정신과 일상의 가치 등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남도 논산 소재, 원장 정재근)과 공동으로 2월 6일(화)부터 4월 21일(일)까지 <유람일자: 유(儒)를 여행하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역사박물관’은 ’19년부터 국내 지방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간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전시를 공동주최하는 복합문화공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한국 유교문화와 충청지역 국학관련 대표 연구기관으로 유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을 위해 '22년 10월 개원했다.
-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고택’, ‘서원’, ‘구곡(九曲)’이라는 3가지 주제로 구현한 것으로 집과 학교, 자연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고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비의 삶의 궤적이 현대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기념 특별전 <다시 유교: 유(儒)를 여행하다>를 ‘서울에서 만나는 충청 유교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재구성했다.
- 1부 <고택유람>은 충청도 명문가 중 하나인 파평윤씨 가문의 명재고택을 중심으로, 윤증(尹拯, 1629-1714)의 초상 초본, 문종의 교육공간인 종학당의 디오라마(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실물 축소 모형), ‘모두가 함께 지켜낸 선비의 집’ 영상 등을 전시한다. 자연과 호흡하며 어울림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물러있는 공간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 2부 <서원유람>은 충청도 유일의 유네스코 등재 서원인 돈암서원을 통해 배움과 실천을 지향하는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조선예학을 정립한 김장생(金長生, 1548-1631) 등 서원의 배향인물 4인의 호(號)를 통해 그들의 세계관과 서원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 ‘예(禮)란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선비의 실천과 품격은 그들이 남긴 서적(김장생의 『주자가례(朱子家禮)』, 1685년경)과 초상화(『양정재시화첩(養正齋詩畫帖)』의 우암 송시열 초상) 등을 통해 살필 수 있다.

○ 돈암서원에 배향된 김장생, 그의 아들 김집(金集, 1574-1656),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호 - ‘하얀 모래와 맑은 시냇물을 바라다’[沙溪], ‘홀로 재단하는 것을 삼가다’[慎獨], ‘늘 봄과 같아라’[同春], ‘초막과 멀리 떨어져 이치를 논하다’[尤庵] - 는 노선생의 따듯한 가르침을 엿듣는 듯하다.

□ 3부 <구곡유람>에서는 율곡 이이(李珥, 1536-1584)의 학문적 공간이자 정신적 이상향이었던 ‘구곡’을 디지털 화폭에 담아낸 수묵 미디어아트 영상을 전시한다. 자연에서 은둔하며 학문을 통해 수양하고자 했던 선비들이 심취했던 구곡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부터의 치유이며 스스로 다함이 있는 ‘자연(自然)’의 역동성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단, 설날 연휴인 12일(월)에는 정상 개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 (<https://museum.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24-0274)

□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충청 유교문화에 녹아있는 선비의 삶의 궤적을 따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정신, 일상의 가치, 타인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품은 풍류 등 현재의 우리를 되돌아보는 명상과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붙임: 1. 전시 홍보 포스터
2. 유물 및 영상 사진

유람 일지

REVISITING CONFUCIANISM

THE ROOT OF
KOREAN SPIRIT

德
를 여행하다

2024 02. 06 화 ————— 2024 04. 21 일





사진1. 『가례집람』, 1685년경, 서울역사박물관



사진2. 돈암서원비 탁본(『금석록』), 조선후기, 서울역사박물관



사진3. 우암 송시열 초상(『양정재시화첩』), 1922년, 서울역사박물관



사진4. 고산구곡시화도병풍 수묵 미디어아트 영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전시 장면)